승리를 쟁취하지 말고 적용하라!

(계12:1~17)

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4.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승리를 쟁취하지 말고 적용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승리를 쟁취하지 말고 적용하라!'
평생을 전쟁터에서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운명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북과의 통일을 이루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아무런 불화가 없이 평화스럽게 살고 있다고 해도 전쟁을 해야 합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붉은 용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한다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표현한 글은, 우리가 읽지 않은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오늘 읽었습니다만 사탄을 의미하는 붉은 용이, 자기들의 부하들을 끌고 와서 전쟁을 하는데 미가엘 천사가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진짜 내용은 뭡니까?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즉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미가엘 천사가 사탄인 붉은 용과 싸워서 이긴 승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엘 천사와 붉은 용과의 싸움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미가엘 천사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그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에 국한된 행동을 하고 계셨지만, 실지로 공중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하늘에서 내려온 미가엘 천사와의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가엘 천사가 붉은 용의 군단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미가엘 천사가 승리를 했고, 그렇게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인 붉은 용이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힘을 얻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략할 때에,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미가엘 천사가 붉은 용에게 이긴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는 적용해가는 겁니다.
마귀가 달려들려고 하면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면 마귀가 나한테 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외치는 행동이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그 승리를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부가 어떻게 사이좋게 잘 지내느냐?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느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가정에 비해서 더 잘 되는 가정,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빠 엄마 자식 부모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주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고통도 없이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

이 승리예요.

어떻게 승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의 레이더를 통해서 감지되는 이 세상 것들을 향해서 매진하며 살았는데, 주님만은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뜻만을 위해서 사셨으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고, 그 뜻의 결정적인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십자가가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에 구멍을 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승리를 가지고 있는데 적용하지 않으므로, 맨 날 돈 버는 일에서 승리하려 하고, 학교 들어가는 일에서 승리하려 하고, 높아지는 일에서 승리하려 하고 있으니, 우리 삶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승리를 적용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을 텐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제쳐놓고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승리를 적용하기 위한 삶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1~5절에 “한 여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해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발로는 달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해산하게 되면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딱 태어나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아기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면서 예수님께 주어지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문맥 전체로 보면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이 여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 된 교회가 머리를 낳았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승리의 내용을 한 번 살펴봐요.

여러분! 먼저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로 딛고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다.’
지금 뭔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는데, 그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과 열두 별'
해와 달과 열두 별 하면 생각나는 것 없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자랑하는 꿈의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열두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해를 옷 입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한 여자를 보고 있는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 중에서 요셉과 관련된 언어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아들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면서 열두 명 중에 특별히 그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바로 그 여자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건 또 어떤 것을 봤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열두 제가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보면 백이십 문도가 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보면 부활하신 뒤에 500여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열두 명 가운데에 계시고, 백이십 문도 가운데에 계시고, 오백여명 가운데에 계시는 겁니다. 마치 원이 있고 그 원 중심에 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는 거예요.
아기를 임신한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잉태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그 엄마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 여인의 존재 의미가 그 잉태된 아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기를 위해서 먹고 아기 때문에 입맛도 바뀌어버려요. 그 동안 애기 없을 때 먹고 살았던 입맛이 거부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들어서면서 생긴 그 입맛, 어떤 여자는 냉면만 찾는다든지, 어떤 여자는 죽어라 감자만 먹고, 어떤 여자는 죽어라 신 것만 찾고,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로 입맛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과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붉은 용'
9절에 보면 "옛 뱀"이라고 하는데 이 옛 뱀은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던 뱀이죠.
그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마귀입니다.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그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을 삼키려고 한다.'
여기에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마귀에게 있어 웃음이 폭발되게 하는 기쁨의 원천은, 하늘과 인간의 마음의 차원인 공중이 완전히 밀폐되고 차단되어서 막혔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10절에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참소한다는 것은 이웃집 아저씨가 내 아들의 비행을 봤어요. 그 비행을 보고 와서는 "아드님을 잘못 키우셨어. 길거리에서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던데? 그게 뭐야."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기대하셨습니까? 내 말 한 마디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께 등 돌려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을 다 이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사는 것 못 보십니까? 저 꼬락서니들을 좀 보세요. 그렇게 당신께서 기대하셨던 사람들의 꼬락서니가 저런 모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소한다는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내 자식의 비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내 마음을 박박 긁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큰일 났어요.
뭔가 하면 공중에 있는 마음들을 땅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하늘과 공중을 차단시키면서 자기의 지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세요.
하늘과 공중을 차단시켜서 땅에 종속되게 만든 사탄의 승리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공중과 하늘이 밀폐되니까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 예수님이니까.
사탄이 공중과 하늘 사이를 막아버렸지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하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사탄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탄이 존재하는 것은, 하늘과 공중을 가로막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하게 만듦으로써 사탄의 존재 의미가 있었는데,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땅에 내려온 하늘이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결탁하게 되어버리면 결국 하늘을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아기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대 땅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여 버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팔아버린 일은 사탄의 자충수입니다. 자기를 충돌하는 수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결국 십자가 사건이 자기가 괴멸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기껏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사탄이 노력을 한 이유가, 바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늘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땅에 내려오신 인간으로써 땅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만 좇아 사는 분으로써 유일하게 그 많은 지구 위의 인간 중에, 오직 주님만 하늘을 좇아 살면서 승리하심으로써 하늘로 불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뿔이 열’이라는 것도 만수(滿數),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뿔은 권세를 말해요. 또 ‘일곱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단, ‘별 삼분의 일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의 삼분의 일은, 결정될 수 없는 수라는 것입니다. 확정될 수 없는 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어도, 예를 들면 사람하나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허락 받은 한도 내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에 관여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욥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마는, 빼앗아 갈만한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욥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별 삼분의 일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별이라는 것이 하늘에 떠 있는데 공중을 의미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기는 했지만 궁극적인 결정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탄에게 권세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기는 자들이라야 인간이고 인격체이고, 그 이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 되니까. 아예 이길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생긴 대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로봇과 결합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사탄의 권세를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겨놓으시고 그 승리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붉은 용의 위협으로부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교회(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서 진정한 승리의 요건이 구비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여자가 낳은 아기가 받아야 되는데, 아기는 낳았는데 아기는 하늘로 올라가버렸고, 여자(교회)는 이제 양육을 받는다고 해요. 교회가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광야는 생명을 위한 어떤 조건도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을 위한 땅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광야 안에 머물고 있는 한,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기껏 붉은 용을 피해서 도망 간 곳이 광야예요. 죽음의 장소로 도망을 간 겁니다.
거기에 물이 한 방울 있습니까? 곡식을 키우겠습니까?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을 있는데 마흔두 달이고 삼년 반이에요.
이 삼년 반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점령하고 성전을 모독하던 기간입니다.
이 성전을 모독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유대 나라의 지상에서의 존재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기간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으

면 선택받은 나라 유대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존폐의 위기 속에서 마카비가 등장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이백육십 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양육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양육의 내용이 뭡니까?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삽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늘로부터 샘이 터지고 하늘로부터 고기가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모든 삶의 필요한 여건들이 주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광야라는 땅, 그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씀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노력도 생명유지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하늘이 열림으로써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늘로서만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하늘로서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5~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나옵니다.
용이 분노해서 여자를 쫓아가서 없애려고 물을 홍수처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물이 다 그쪽으로 빠지게 하면서 살리십니다.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하면서 13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붉은 용의 묘사가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자들의 자손들과 싸운다.’라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를 통째로 없애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각개전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손들이에요. 교회는 광야에 있습니다.
천이백육십 일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 성전을 점령해서 유대 민족의 존폐의 위기가 닥친 것과 마찬가지 상태, 그렇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러한 존폐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하늘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로 모임이 이루어진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이라는(자궁이라는) 세계에 있던 아기가 이 세상이라는 다른 세계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계시다가(교회가 주님의 자궁이었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동안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자궁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응애~' 하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서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해산(解産)이 되는 겁니다.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동안에 마음을 하늘로 보내서 그 마음이 하늘에서 성령님의 중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아버지를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관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을 하늘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공략해 들어와서, 하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늘에 가 있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교회(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되는 동안에 교회 안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하늘로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땅을 사는데 그 중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붉은 용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라고 나옵니다.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승리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피로써 승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양의 피는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객관적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생활화함으로써, 날마다 들어오는 붉은 용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승리만 이루어지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아버지께서 계획하신바대로 다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뭘 걱정할 것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날마다 일어나는 붉은 용과의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적용함으로써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기쁨과 평강과 하늘나라의 뜻이 성취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